







# 걸프전쟁을 어떻게 볼 것인가



유 달 승

〈대학원 중동지역학과 석사과정〉

이제 걸프전쟁은 미국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났다. 나는 이 전쟁을 지켜보면서 몇가지 놀라운 점이 있다. 먼저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를 오락으로 승화시키는 자본주의 언론의 오락함에 감탄했다. 그리고 히로시마 원폭의 6배에 가까운 폭탄을 쏟아붓고도 모자라 사실상 항복을 한 이라크에 계속 전투행위를 선언한 코르 아자수들의 용맹스러움에 감탄을 했다. 동시에 생각해보면 2차대전후 미국이 개입하지 않은 전쟁이 몇개나 있었을까? 세계대대 봉신사에 정보를 독점한 국내의 언론들도 이런 분위기를 그대로 전했으니, 미국을 미군인 보다도 더 사랑하는 무기전문가들의 논리로 우리를 즐겁게 해주었다. 나는 이보다도 미국을 조금 더 덜 사랑하는 비전문가의 입장에서 이 전쟁의 본질을 따져보고 싶다.

## 접근방법

이 전쟁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아랍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걸프전쟁의 성격을 분석하면서 남한 운동권의 입장을 차이적으로 접근하는 태도를 보아왔다. 즉 자신의 정파입장을 뛰어넘어 실적을 무조건 긍정하려 했다. 이것은 아랍사회의 역사, 종교 등의 특수한 사항을 무시하고 현실을 과도적으로 생각한 것이다. 이것은 마치 아프리카에서 사는 사람이 에스키모인들에게 해 옷을 벗고 다닌 것과 다를 바 없는 것과 같이 이리서는 일이 아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국가의 개념만 가지고 국가 이상의 연대감이 형성되어 있는 아랍사회를 분석하기에 무리가 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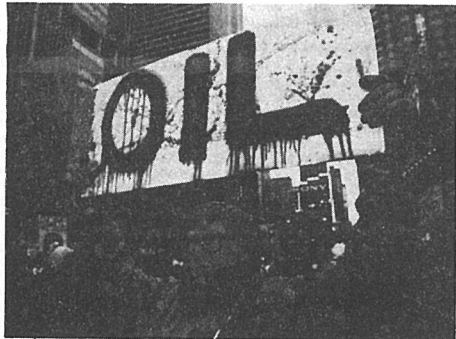
둘째, 전쟁의 성격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어느 전쟁이든지 복잡한 상황속에서 진행되는 것 때문에 이를 한마디로 압축하기 어렵다. 그러나 전쟁의 발단과 전개 양상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페르시아를 사해로 보자. 페르시아전쟁은 2500년 전부터 시작되어 내전은 거의 미국과 대국으로 전쟁으로 확산된 형태를 띠고 있었다. 그런데 현재 역사가들은 이 전쟁을 페르시아 민족투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누가 먼저 손을 댄지는 전쟁의 성격과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즉 역사적 사건은 어느 순간 일어난 것이 아니라 연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걸프전쟁은 미국 대 이라크의 전쟁으로도 말미암아 드러나며, 이와 동시에 아랍민족주의 대 제국주의의 대결양상으로 치달았다. 중동의 현대사는 아랍민족이 반제국주의에서 자주성을 높이 쫓아온 역사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셋째, 후세인 대통령에 대한 평가이다. 미국은 그동안 심리전의 차원에서 4대 봉신사를 통해 그야말로 악마에 찬정보를 계속 흘려보내 왔다. 제국주의 언론에 정보를 거의 의존하는 국내언론들도 삼위 질서 수준에도 못미치는 인식

공격을 대대적으로 기했다. 특히 자신의 정파입장을 강변하면서 후세인을 파시스트라고 매도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런 비판들은 삼국지에서 역사가 명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듯이 자정 유포사판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같은 오류에 빠지고 있다. 국내 기자들이 현지 취재를 가서 당황했던 것은 후세인에 대한 평가가 미국 측과 아랍측이 너무 상반된 점이다. 후세인은 젊은 시절 지하혁명운동에 참가했고 반란과 용모가 판치는 혼란 속을 헤치고 지금은 혁명평의회위원장에 올랐다. 그리고 이라크의 8년전쟁 동안 그의 통치권은 더욱 확고해졌다. 이 과정에서 후세인이 잘못된 점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한 혁명가의 삶을 대치중인 적이 떠돌던 살리탄에 전적으로 의존해서 난도질 한다는 것은 더욱 잘못된 것이다.

## 전쟁의 본질

이 전쟁의 본질은 한마디로 석유를 누



반전시위를 하고 있는 미국의 대학생들 (사진: '말', 3월 3일)

가 장악하려는 싸움이다. 세계경제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중동석유를 장악하려는 세계를 지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소련의 식민지 발전정책과 무관지면서 소련의 균형이 깨진 상태에서 아랍 민족의 대의를 내건 이라크와 중동지역에서 그동안 불리했던 정세를 뒤엎고 석유를 장악하려는 미국의 이해가 엮인 전쟁이다.

중동의 석유는 8대 메이저가 장악해 왔다. 이들은 엑슨, 쉘, 모빌, 테드코, 오일, 텍사코, 셉, 브리티시 페트로리엄, 프랑스 석유(이 중에서 6개가 미국회사)인데 1960년대 말부터 석유수익의 23%만 산유국에 준 나머지 모두를 차지하면서 국제유가를 조종해왔다. 그리고 아랍국들의 석유국유화조치 이후에도 석유 경제시설, 공급망을 장악하고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이런 전쟁에서 미국은 완벽히 승리를 거두고 원유생산, 공급망을 독점하고 초강대국의 지위를 누릴 것이다. 일본과 독일이 미국의 무

이한-이라크 8년전쟁에서 최근 걸프전까지 계속되는 중동의 위기는 걸프 우리의 무관하지 않다. 이런 전쟁에서 최강대국임을 천명한 것은 미국의 압력이 오히려 양으로 가세될 것이다. 이번 시리아에서는 일정한 정보보도도 전쟁의 본질을 파악할 수 없었던 제2연대를 비판했다. 아랍의 특수성과 제국주의의 본질을 인지함에 기초하여 걸프전에 대한 올바른 시각정립을 그 목표로 두었다.

주로 전쟁의 발단원인과 전후 세계질서재편과정과 이속에서 더욱 구체화될 미국의 '힘의논리'와 이에 대응할 한국내 민족민주운동의 제할일을 제시하고자 한다.

(편집자)

리한 전쟁정보를 담담히 감수하면서 미국을 따르는 것은 이들 국가들이 원유의 대부분을 수입해야 하기 때문에 미국의 해고 노선을 인정하는 것이다.

지난 1월 29일 부시대통령이 의회에 보고한 연두교서에는 미국이 초강대국이 되었다는 신조였다. 이 교서에서 "미국은 미국의 세기"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

하게 만들었고, 2주일전에 자살한 개시 날짜를 정해 놓고도 이리저리 속임수를 쓰는 등 시뮬레이션 게임을 하고 있었다. 어떤 관에서 보면 세계 강대국의 지위를 굳히려는 미국의 음모도 이라크가 팔러

는 데도 있다. 이라크와 쿠웨이트는 원래 한나라였는데 영국의 분할로 분리되었다고 그 후 국경분쟁이 일어났다. 양국간의 문제로 중요하지만 걸프전쟁의 결정적 계기는 미국이 원유가격을 조종하여 강력한 반미국가였던 이라크를 제거하려 했기 때문이었다. 이라크는 이라크 전쟁으로 경제력을 심각했다. 그리고 전후 복구에 필요한 자금이 절실했다. 주요 자금원인 원유가격의 향방에 따라 이라크 경제가 큰 영향을 받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미국의 조종을 받는 사우디, 쿠웨이트등 왕정국가들이 찬상을 하여 가격을 폭락 시킴으로써 이라크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다. 이 원인은 1990년 2월 후세인 대통령이 암전에서 열린 아랍정상회담에서 미국군대, 함대, 중동에 주둔하고 있는 것을 비난하면서 철수를 주장하고 이 석유가격을 통제하고 있다고 언설한 것이 발단이었다.

이 연설 직후부터 미국의 이라크비난이 계속되면서 연설 당시 18-21달러였던 유가를 11달러 수준까지 떨어뜨렸다. 유가폭락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던 이라크에 수십억 달러의 손해를 주었다. 1990년 5월30일 바그다드 아랍정상 회담에서 이라크는 미국과 친미왕정국가

## 미국, 중동 주도권 회복위해 전문조장 중동석유 장악이 세계 지배를 의미

처럼 미국은 냉전체제의 양극구조에서 소련을 떨쳐버렸다. 미국은 소련의 위협이 없어진 상태에서 초래하게 된 복잡한 분쟁에 대해 첨단군사기술을 바탕으로 초강대국의 위치를 유지하겠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미국의 전략은 소련을 고립시키지 않고 동반자로 삼고 있다.

## 전쟁의 발단

이번 전쟁은 미국이 싸우는 각본대로 처음부터 전개되어 진행되었다. 미국은 이라크가 선택한 여자가 없이 군사행동을

들의 유가정책이 이라크에 대한 전쟁행위라고 경고했다. 1990년 7월10일에도 유가폭락을 위태롭게 복귀시키려는 4개 석유장악회사가 열렸지만 쿠웨이트가 거부하자 후세인 대통령은 "생계가 끊어지는 것보다 목숨이 끊어지는 게 낫다"라는 포란의 경전을 인용하면서 군사행동의 가능성을 경고했다.

이라크의 주장에 따르면 유가가 28달러에서 11달러로 하락한 이래 이라크의 경제손실은 140억 달러라고 한다. 그리고 유가폭락은 1990년 7월30일 잿다에서 쿠웨이트와의 협상에서도 실패하자

이라크는 병력을 국경 근처에 증강배치하여 군사적 위협을 하면서 쿠웨이트가 위태롭게 복귀하도록 압력을 가했다. 일련의 과정을 본 때 미국과 이라크의 대결은 예정된 것이었다. 미국은 이라크-이라크전쟁기간에 이라크를 지원하여 지역강대국으로 만들었으나 이라크가 독자노선을 취하면서 반미로 돌아서자 온갖 비방을 다해왔다. 화확무기보유, 세계1위인 미국이 걸친 이라크를 비난하면서 후세인하면 화확탄의 이미지를 굳혔고 의회에서는 이라크에 대한 수출금지조치와 보복을 결의하는 등 양국간에 긴장이 고조되어 왔다. 이라크도 원유가 하락때문에 발생한 절박한 위기에서 군사력을 국경에 배치하여 계속 무력시위를 했었다. 미국에게 쿠웨이트문제는 이라크를 명분없이 봉쇄하는 절호의 기회였다.

## 아랍 특수성 고려해서 접근해야 민족주의 대 제국주의의 대결 구도

### 미국의 계산

세계최대의 석유소비국 미국이 중동지역에 갖는 이해관계는 사활이 걸린 문제이다. 1979년에 작성된 「미국대외정책목표 및 해외군사시설보고서」에서 최후목표를 페르시아에서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지키고 있다. 1980년 1월23일 미대통령일명교서에서 카터 대통령은 「페르시아인 이외의 세력이 페르시아의 지배권을 확보하려고 시도한 경우, 이 시도는 미국의 사활적 이해를 위협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군사력을 포함한 모든 필요수단을 동원해 보복할 것이다」라는 이른바 카터 독트린을 발표했다. 미국의 사활적인 중동전략은 레이건 정권에 그대로 이어졌다.

부시정권에서는 소련의 힘이 쇠퇴하여 이전의 적이 없어진 상태에서 소련을 하위파트너로 설정하고 제3세계에는 이전의 적대강대국들을 보완하여 직접적

는 브레즈네프와 무력사용을 용호하는 카신저의 논쟁이 있었지만 역시 강경으로 기울었음을 보였다. 미국은 그동안 소비에트연방 해체모나를 확보하기 위해 이라크의 군사행동을 조장해왔다. 이는 미국이 군사개입의 명분을 얻고 안정적인 지배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미국은 원유가 폭락을 통해 이라크의 목줄을 죄면서 군사행동을 조장했으며 군사행동개시를 사전에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묵인했다. 실제 암암리에 요르단 미대사가 이라크의 일부를 탐지했고 부시대통령도 정보기관을 통해 알고 있었다. 그러나 클린스

## 아랍 특수성 고려해서 접근해야 민족주의 대 제국주의의 대결 구도

비 주이러한 미대사는 이라크, 쿠웨이트간에 무력충돌이 발생해도 중립을 지킬 것이며 「부시대통령은 대이라크전쟁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사전 발생 일주일전인 7월 25일에 이라크측에 통보했다. 사건발생 3일전인 7월31일에 로 클레리 국무차관보가 이런 약속을 이라크측에 반복했다.

그리고 그렇게 군사충돌이 일어날 경우 미국은 쿠웨이트에 작전지역을 한정시키지 않고 바그다드를 공습할 것이라고 발언했던 유한 공군참모 총장을 그날로 전직 해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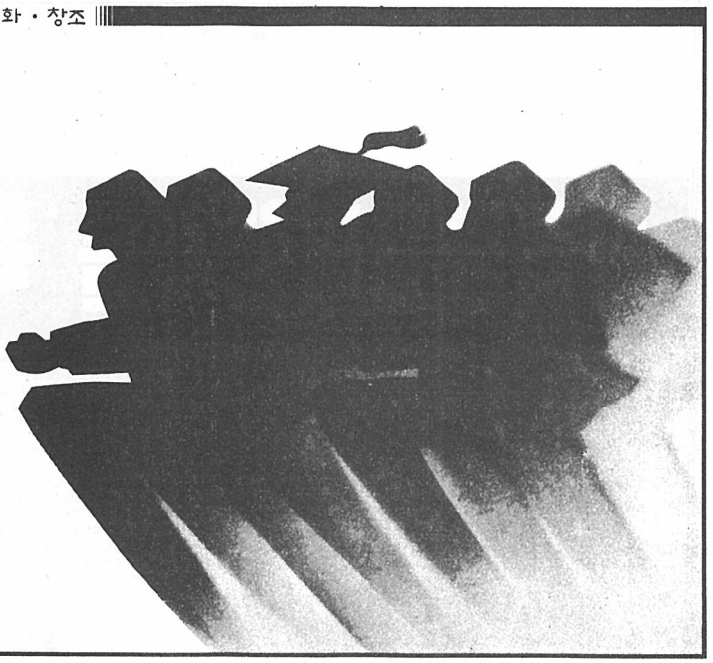
### 맺음말

미국의 전쟁목표는 「쿠웨이트 해방」이 아니라 이라크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미국이 이 전쟁을 통해 취해는 일련의 과정을 볼 때 세심스러운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라크가 군사적 패배를 하면서 미국의 침략파도가 차나라하게 드러났다. 결론적으로 걸프전쟁은 「자유의 사도」미국이 자랑하는 무도적인 침략전쟁이다. 묘하게 전쟁을 통해 미국과 이라크는 서로 자국의 신을 내세웠다. 부시는 세계평화를 지키려는 미국을 하느님이 저주를 짓기라고 말했다. 그러나 나는 무지비한 침략전쟁은 하느님도 바라지 않았다고 말하고 싶다.

### 끝나는 차례

1. 걸프전쟁의 본질과 전개 양상
2. 전후 세계질서 재편방향
3. 아랍민족주의 대 제국주의 대결 구도
4. 미국의 전쟁전략과 세계 주도
5. 걸프전이 한국사회의 미친 영향과 이해득실.

## 앞서서 달리는 사람들 — 2000년대의 주역 外人입니다.

미래를 향한  
힘찬 도약—오늘도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배움의正道를 따라  
달려가는 外人은  
젊음의 표상입니다.참다운 학문의 전당에서  
젊음과 낭만을 느끼며  
교양과 지성을 쌓아가는 外人—세계를 향해  
미래를 향해  
날로 성장하는 外人은  
2000년대 한국을 이끌어갈  
주역입니다.365일까지 않는 학문 탐구의 불꽃이  
지금처럼 피어오르는 한 우리들에게는  
보장된 밝은 미래가 있습니다.韓國外國語大學校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정권의 각축전 수서와 지지제

## 지자체 둘러싼 제도권 대립은 기선제압위반 술수 수서비리 투쟁·생존권 투쟁으로 야당전인 해내야

### 수서비리의 정치 권에의 여파

미-이라크 전쟁이 불과 6주 만에 미국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났다는 보도가 나오자, 이라크가 미군을 철수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졌다. 그러나 이라크가 미군을 철수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졌다. 그러나 이라크가 미군을 철수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졌다.

### 민족민주운동의 대응

그런데 민족민주운동은 현재 정권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현재 민족운동의 생존은 위기 속에 있다. 물가는 하늘높이를 찌르고 있다. 임금도 낮고 있다. 임금도 낮고 있다. 임금도 낮고 있다.

### 임이 불어닥쳐 가족이나 여러

을 통해 극복하고자 하는 민중들의 생존권 투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수서비리에 대한 분노를 조직하여 미-노정권에 일대타격을 가해야 한다. 즉 생존권투쟁과 수서비리투쟁이 상반된 민족민주운동의 두가지 중심투쟁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 이런 점에서 볼 때, 민중들의 투쟁이 폭발하여 야당을 강제해내지 않으면 야당의 투쟁은 버티는 이데올로기나

민중운동은 수서비리에 대한 독자적 투쟁을 강화하여 분위기를 고양시켜내야하며, 이러한 분위기를 고양하고자 야당이 여당과 타협할 가능성을 봉쇄해야 한다. 나아가 이러한 독자적 투쟁을 기초로 야당과의 연합전선을 확고히 구축해야, 다가오는 92-93년 권력투쟁에서 민주정부의 수립을 실현해



「작경·홍곡」매도공세에도 불구하고 「수서비리」의 진상규명투쟁은 계속되고 있다. (이재원 기자)



「제2, 제3의 이윤용씨」가 조속히 나와야 한다고 생각

수서비리투쟁이 특혜분양사건으로 진상규명운동에 있어서는 시한부다. 즉 특혜분양사건으로 진상규명운동에 있어서는 시한부다. 즉 특혜분양사건으로 진상규명운동에 있어서는 시한부다.

### 운동에 대해 경성원이 하고

있는 일은 수서비리에 대한 의혹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수서비리투쟁을 접할에 기대할 수만은 없습니다. 시민이 직접 나서서 수서비리를 쫓아내야 한다는 22일 「수서비리」 시민대책위원회를 결성할 사수를 선했

### 공생관계를 유지시키는 「점

은돈」이 판지 못하도록 급속한정제실시와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사들여야 합니다. 「수서비리」와 지자체선거를 폐지할 생각할 수 없다고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유동성 기획실장

커질 것이기 때문에 계속적인 진상규명운동을 시민자원에 힘입어 전개할 것입니다. 이러한 진상규명운동을 계기로 거대한 시민적 압력을 조직

# 군사주의부활, 탄압공세 기승

## 결전전쟁이한반도에미칠영향

미-이라크 전쟁이 불과 6주 만에 미국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났다는 보도가 나오자, 이라크가 미군을 철수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졌다. 그러나 이라크가 미군을 철수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졌다. 그러나 이라크가 미군을 철수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졌다.

유요를 한층 적극화할 것이다. 여기서 노정권이 노리는 것은 한반도의 위기를 높이고, 이를 통해 앞으로 본격화될 민생투쟁과 민주운동 탄압을 이끌어 내는 구상이다. 또한 노정권은 수서비리투쟁을 계기로 강화될 민생투쟁과 민주운동 탄압을 이끌어 내는 구상이다. 또한 노정권은 수서비리투쟁을 계기로 강화될 민생투쟁과 민주운동 탄압을 이끌어 내는 구상이다.

### 다시 고개는 '냉전적 군사주의'

미국은 이번 전쟁을 계기로

다시 고개는 '냉전적 군사주의' 미국은 이번 전쟁을 계기로

# 중강도 전략통한 비핵평화군축운동 탄압 남침위기사설유도 한반도 미·일 지배권강화

적(敵)으로 삼은 세계전략의 중심을 「남(南)」으로 부리의 위력, 즉 「제3세계」의 지역전쟁으로 옮기고 있다. 이라크와 같은 국지적 지역전쟁의 공방 위협이 앞으로의 세계화와 유지에 가장 큰 적이며, 이를 막기 위해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현재의 군사안보체제와 기업전쟁을 그 틀을 유지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이것이 바로

다. 한반도 주변에서 미국 주도의 집단안보체제를 강화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미국은 이번 전쟁에서 동맹국들의 공동방위분담을 강조하고, 이를 통해 제법 합당한 재배분을 받고 있다. 이는 곧 그렇지 않아도 미국의 세계전략에서 비중이 한층 높아지고 있는 필리핀과 동맹국인 일본, 한국, 대만 등을 더욱더 밀착시켜나갈 것을 말한다.

### 「북한」독립 종전도 전

략. 반면, 일본이 정치·군사강국으로의 떠오르는 계기를 지원해 줄 계획을 전한다. 일본은 이번 전쟁에 자위대 수송기를 파견하고 총 130억달러에 이르는 전비를 분담했다. 이는 사실상 전후 최초의 해외파병과 전쟁 기금으로, 그간 일본이 정치·군사강국으로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평화헌법을 무력화하기 위한 정경다마시로의 의미를 갖는다.

그렇다면 남은 문제는 이같은 상황을 어떻게 보고 무엇을 해야 하느냐이다. 먼저 정보를 양분해서 정권이 선전하는 이른바 총체적인 위기가 사이다 하더라도 이것이 과연 이렇다치 비롯한 것

도 이번 전쟁은 일본이 미국의 동맹국에 있어있으면서도, 미국이 이 지역에서 행사해왔던 상당한 권한을 이 양면의 자전으로 계기가 될 것이다. 알다시피 미국은 경제적인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지역에서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한 방법인 양을 것이다. 조선과 대만 사이에서 그 공방대를 넓히고 있는 비핵·평화군축운동은 정권의 몰락·이탈을 도모하기 위해 내세워 거센 반대에 직면할 것이다.

다. 그러나 이번 전쟁은 이를 한층 빠르게 추진하는 계기로 군사강국으로서 일본의 부활을 재촉하는 의미를 갖는다.

최순일

(민주화운동 청년연합회원)

91년 1학기 외대학보 기획광고 「그대 외대의 자랑, 외대 그대의 자랑」의 주인공을 찾습니다.

외대학보에서는 자랑스런 우리의 모습을 찾습니다. 안팎으로 외대의 명성을 드높이며 외대를 우리 모두의 자랑으로 만든 출신. 24시간 하루를 차곡차곡 켜가며 봉사 활동을 벌이는 부지런한 학생. 신념에 찬 실천한 삶으로 모범이 되고 있는 출신.



# “귀 좀 빌려드릴까요?”

이런 당당하고도 신선한 모습들을 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알려주세요. 언제라도 기꺼이 귀를 빌려드릴게요.

외 대 화 보

# '91 「신입생 수련회」 문화행사 평가

## 내용없이 좋기만(?)한 「신입생수련회」

이제 몇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들에게 대학문화를 소개하며 낯익음을 느끼고 해내기 위한 「신입생 수련회」가 용인 캠퍼스 2월21일부터 23일까지 모인 학생들, 서울 캠퍼스는 2월28일부터 3월2일까지 속초에서 개최되었다.



오도된 가치관, 주입된 이데올로기 속에서 외세와 자본주의 문화-일회성 소비문화, 이기주의, 개인주의, 향락-피폐문화-를 주로 접하며 때로는 폭력적 생활태도였던 우리의 신입생들에게 대학문화를 어떤 모습으로 비쳐줬는가. 선배 재학생들이 말하듯 집단속에서 하나가 되어 어우러진다는 공동체 문화가 어떤지 모습일지도 느껴졌는가.

이번 「신입생 수련회」 문화행사는 양 캠퍼스 모두 신입생과 재학생을 위한 진로·문화공헌과 단체·과 단위로 준비한 단체 행사, 2가지로 나누어 진행되었는데, 현실로는 신입생들이 단체 행사 속에서 구체적인 대학문화의 실체를 접할 수 있었다. 이는 신입생과 재학생이 함께 축적 공헌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신입생들이 일방적으로 「공헌을 관망할 것」을 강요하는 것이 아닌 신입생 스스로 자신의 생각을 담아가는 가운데 고민의 고리를 가져 나가

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다른 대답이 나오는 결과로 나타났다. 실제 용인 캠퍼스의 경우 전체 행사 중 동아리 공연, FBS의 방송, 강연, 문화행사와 상영, 집체극, 노래 공연 등 8가지의 행사들이 나름대로 주제나 기조를 이뤘지만 「백화점식 나열」에 머무르고 전체 「신입생 수련회」의 주제인 「하나의 진로를 위하여」, 전제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내용에 부합했다고 보기에 어려움이 많았다.

한편 서울 캠퍼스의 경우 1주제조차 명확히 설정되지 않아 예정되었던 문화행사와 상영이 빠져서 동아리 연합회 공연, FBS방송, 이학생활원예연극, 모두 3가지의 전체 행사가 상조 연결되는 고리 없이 제각기 고립, 분산적인 내용과 형식을 보여 주었다.

하지 않은 채 「홍학생활」 단대 학생회에서 알아서 하겠다라는 단순한 사고 속에서, 혹은 「신입생들은 아직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입장으로 입회했다는 치주나 없는 자제가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시켜 단지 공연행사를 보여줄 뿐이라는 평가가 나오게 된 중요요인이었던 것이었다.

그렇다면 신입생들이 수련회를 통하여 모든 대학문화를 알게 되는 것이 아닌 이상 이후의 극박 대안과 전망-즉, 신입생들을 건강하고 대학 공동체 문화의 주체로 일컫게 해주는 데 있어 재학생들의 노력이 어떻게 구획하고 시켜나가는 것인지, 그리고 그러한 노력이 현실화 되고, 그에 따른 단체적 행태에서 신입생 환경 행태와 문화의 내용들을 풍부히 조

# 악법이 말하는 '서정성'은?

-개정된 「음반 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과 함께 독배를 들었던 소크라테스가 전쟁 그러한 법이 사회지도를 내버려 두었던 시민으로서의 자책에서 죽음을 마다하지 않았던 지금 우리도 독배를 들었어야 할 때인 듯하다. 이라면 지금이라도 악법의 본질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응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지난달 7·8일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이하 민족예술인총합) 사무실에서 「사건실의철학과 창작 표현의 자유 경계」를 의제하는 음악인들의 농성이 있었다. 이는 「음반 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개정안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1월29일 민족예술인총합 회의(이하 민족예술인총합)에서 「악법도 법이다」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개최된 바 있다.

토론회는 민족예술인총합에서 2월초 상영회를 발표하고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또한 대중음악창작인 모임인 「하모니」에서도 여기에 뜻을 같이 하고 개막지지를 위한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대중음악인들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음악인들의 반발에 대한 인내까지 지난날 7월 개정 「음반법」은 국외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개정된 음반법에서 문화운동에 대해 더욱 강화된 탄압을 예고하는 부분은 「사건실의철학」의 강화, 즉 들 수 있다. 우선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것은 이제까지 심의의 수준이 어떠한가를 보여준 것이다.

또한 예로 삼는 노래 「노래」에서 최근에 만든 노래 「이마」, 우리는 하나니 조국에서 살고 싶어요의 노래를 거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화적 관습을 상징한다는 이유로 심의에 통과되지 못했다는 사실도 거의 모든 심의가 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문제의

제 처리한 것은 비디오계의 폐쇄-음반-특권 내용에 대한 국민들의 강한 규제요구를 근거로 음반에 대한 무제한 심의를 할지라하는 의도라고 말하고 있다. 사실 비디오에 대한 음반의 제작자와 유통주-판매처가 엄연히 다르다. 그런데도 국산소수의 규제를 들어 음반과 비디오를 함께 처리하고 있는 것은 개정안이 현실에 근거하지 않고 있음을 말해준다.

또한 이제까지의 심의가 가혹한 부분에 대해 부당한 예외판용을 보였음을 알 수 있다. 정

의를 가로막고, 불건전한 문화 조성에 온 것이 사실이며 비합리적 폐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법률로 못박아 강요시켜 놓은 것이다. 음반제작자의 등록조건 「녹음-제작에 지장이 없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현실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민용협 대책위의 이야기를 빌리면 「사실상 그러한 규정이 있어도 수십억의 자금이 없으면 신규등록을 볼 수 없는 현실」을 볼 때, 이 규정을 소수 독점적 음반 제작자의 이익을 보장해주는 구실 밖에 못한다는 것이다.

거기에 등 록을 어겼을 때의 죄악에 공판의 공판의 심의에 걸려 불법제작된 이 가혹한 판 용을 가진 음반제작을 막 으려는 의도인 이 분명하다.

또 이런 개정 안에서 외국인 투자자를 전담하여 영화에 이이 음반제작-판매까지 완전 한 시장개방을 허용했다. 국내 음반업계가 큰 타격을 당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민족문화의 소멸과 문화의 종속이 우려된다. 그런데도 문화부는 「한-미문화협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라 어쩔 수 없다는 말로 반박을 일축 해 버리고 있다고 한다.

다른 이런 나라의 경우를 보아도 이러한 심의를 통한 실정상의 「정밀」개조는 없다. 어떤 문화정책이든 그 내용은 현실적인 이후의 결과물에 의해 평가가 됨이 바람직하다. 사적인 그러한 표현의 자유를 막는 것은 건전한 문화의 파멸을 자초할 뿐이다. 건전한 문제의식을 담은 건전한 문화는 봉쇄와 금지에 의해 생장하는 것이 아니다.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었을 때 창작-유통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용협은 「앞으로 개정악법 철폐를 위해 헌법소원과 공청회를 갖고, 전국적인 조직망을 구축하여 대응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취지가 표준으로 남겨진 것은 향락-피폐문화로 우리 스스로 쇠락해져서 못된 데 그것은 문화운동을 탄압하는 구실이 된다는 것이다. 이 문제가 음악인들만의 문제일 수 없다. 문화는 어떤 한 사람이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고, 민중문화의 건설은 우리 모두의 현대성에 가능하게 때문이다. (황호순 기자)

# 작은 것이 소중합니다 16



「3월 0일 외리에 입학한지 0개월/날에는 초봄날씨, 따뜻한 봄날씨가 사람의 마음을 뒤흔드는 때이다. 날씨가 화창하고 오는 우리 00와 친해져 한창 잔디밭을 찾아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데 저쪽에서 조금 전 강의를 하신 교수님께서 오시는 것이 아닌가. 교무실 옆 선생님과 선배형들에게 90도 각도로 꾸벅 꾸벅 인사하던 순간이 남아 허리를 숙여 인사하는 학생들의 지나치려고 했을 때, 뒤에 교수님도 처음엔 놀랐지만 호탕하다는 목소리로 「91학번 신입생인가 보구만, 모범적인 학생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다.

그 말을 들은 나는 기분이 너무 좋았다. 왜냐하면 시적을 위주로 모방을 행한다는 고등학교 시절, 모방적이란 말을 한번도 못들어 봤으니까... 선배는 신입생들에게 인사 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교수님에게 인사하는 모습은 자주 볼 수 없습다. 외대인이여! 교수님, 선배, 후배들과 정겹게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가득한 외대는 오늘 바로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그 누구에게든 인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문화부)

# 하나의 주제속에 유기적 내용구성 부족

한편 용인 캠퍼스의 경우 1월말부터 초순까지 준비 주제들이 세차례 이상의 논의를 거쳤으나 남한선 열사 의문사 사건으로 인한 재판의 상향의 변화에 따라 「신입생 수련회」를 조직적으로 준비해 내지 못했다. 이는 전제 기획의 문제이자 준비정도의 내용이기도 한데 결국 하나의 커다란 틀 속에서 중요한 내용을 갖기 못했다는 결론이 되는 것도 알고 느낀 것

은 문제다. 무엇보다도 주제라는 생각이 갖게 하는 주요원인이 되었다. 그러나 이는 앞서 언급했듯이 부차적으로 다루는 문제일 뿐이었고, 가장 시급하고 근본적인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즉, 「신입생수련회」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라는 고민 속에서 나온 「신입생 수련회」에 재학생들은 전혀 고민을

해 내지 못한 공헌 형식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창조를 하려는 의식속에서 대안을 내놓기 위한 방안에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그대야 이후 또다른 신입생들을 맞이할 때 전제 그 주제도 인식을 하고 그들이 스스로 참여해 나갈 수 있는 장(場)을 마련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바로 대학문화에 아직도 현존하고 있는 오해의 대안과 파고드는 외세와 자본주의의 문화적 태도를 논리적으로 공격해 버리고 막아내는데 하나의 굳게 다져진 초석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김연희 기자)

독서도 즐거움  
책도 재미있다  
지상전람회  
김병길 (국보복 위반·2년 복역)  
「이시대 독자들」 서화전-단원 세림, 일원 글씨전-중에서

# 글을 모읍니다

글을 쓴다는 것은 두렵거나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글을 쓰고 싶는데 실패한 용기가 나지 않아 망설이는 외대인이 있다면 이제 펜을 드십시오. 여러분을 위해 비워 놓은 지면을 이제 채워 주시길 바랍니다. 가족 가족.

- 휴산의 소리-학내-외에서 생기는 여러가지 문제들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담는 란(2~7매)
- 독자사진, 독자만평
- 문예창작물-시·수필·일기·서간문 (각 9매)
- 서평·영화평·공트(각 12매)
- 매주 금요일까지 학생회관 2층 외대학보 학생기자실



잘쓰지 못했는데...  
내 글도 정말 실어줄까?





# 인권의 사각지대 한국군부의 현주소

3462



3464